

종합·국제

현장과 시각

진땀 흘린 전남교사 해외연수



최재호

체육부 차장

“해외 연수는 여유를 가지면서 재충전하는 시간이라는 기대감으로 설렘이었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그런 생각을 싹 고쳤습니다”

최근 미국 시애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이하 MS)에서 열린 전남도교육청 2007년도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우수교원 국외연수에 참가한 한 교사들은 진땀을 흘렸다.

“해외 연수라고 해서 여행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는데 타이트한 일정과 강의 등으로 국내에 있을 때 보다 더 긴장하고 과제물도 많다”며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연수는 전남도교육청이 2007년도 ICT 활용 우수교원 22명을 선발, 정보화 선진국 탐방 일환으로 교육 ICT 선진기업인 미국 MS에서 치러졌다.

이틀동안 교사들은 MS사에서 ▲학생 수준에 맞는 컨텐츠(직접 쓰면서 하는 컨텐츠) ▲PIL (Partners in Learning·교원 연수과정) ▲Live @edu(한번 로그인 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통합정보 제공)에 대한 강의를 듣고 토론을 벌였다.

마지막날 강사로 나선 MS사 미치 벤슨 상무는 “각국의 교사나 기업인을 대상으로 강의해 봤지만 이번 교사들의 진지함과 높은 수준에 놀랐다”고 평가했다.

교사 해외연수는 1년간 각 분야에서 뛰어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의 선진국에서 다양한 문화와 선진기술을 경험해 학생들에게 전수 하라는 취지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는 관광성 위유로 변질됐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ICT교원 연수는 시작부터 사뭇 달랐다. 당초 전남도교육청은 세계적으로 ICT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인도 뉴델리대학으로 잡았고, 사장이 여의치 않자 교육 ICT사업의 선진기업인 MS사로 정했다.

연수 참가 교사들은 출발부터 보고서 작성 방향에 대해 서로 열띤 토론을 벌였고, 현지에도 착해서도 4개 조로 나눠 분야별 과제를 정해 협의하는 등 연수기간 내내 긴장감속에 지냈다.

연수 내용 보고서를 마무리한 한 교사는 “해외 연수 간다고 주위에서 부러워 했는데 힘들게 공부만 하고 왔다”며 꾸밈 아닌 꾸밈을 털어냈다.

이번 행사는 공직자들의 해외 연수에 대한 개념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참가 교사들이 연수에 임하는 진지한 태도에서 과거 지적됐던 위유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앞으로 공직자 해외연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또다른 배움의 기회로 인식될 것 기대해 본다. /lion@kwangju.co.kr

‘황의 법칙’ 황창규 사장도 소환

삼성특검, 계열사 전·현 임원 8명 소환 조사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용 특별검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이 건의 삼성 회장 일가의 과세자료를 제출받 아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안 되니까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하는 관계가 됐는데, 추후 필요한 게 있는지 여부는 판단을 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李당선인 무혐의 확정적

BBK 특검 “기소 목적 아니다”...내일쯤 결과 발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호영 특별검사는 19일 “특검은 의혹 사항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누구를 기소해야 성공하고 불기 소하면 실패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BBK 의혹과 감사의 회유·협박 의혹과 관련해 김경준씨를 다시 소환해 BBK 설립 배경 등과 관련해 당선인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 막 바지 보강조사를 벌였다.

정부, 힐 미국무부 차관보에 수교훈장 광화장 수여

힐러리 ‘텍사스 결투’ 백중세 오바마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위)과 버락 오바마 의원이 지난 18일(현지 시간) 위스콘신주와 오하이오주에서 각각 유세를 하고 있다.

민주 경선 최대 승부처

兩진영 사활 건 총력전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승부처인 내달 4일 텍사스주 예비경선을 앞두고 18일(현지 시간)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 두 의원이 백중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는 별도로 실시된 다른 두개의 여론조사에서도 이번 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키팅 홀랜드 CNN 여론조사국장은 “두 주자가 이번 조사에서 박빙세를 보인 것은 텍사스주 민주당원들이 호감이 가는 두 후보를 놓고 선뜻 선택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분석했다.

내달 4일 치러질 텍사스주 프라이머리는 모두 228명의 대의원이 결여 있어 박빙의 시소게임을 벌이고 있는 오바마, 힐러리에겐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연설의 귀재’ 오바마 연설 표절 논란

힐러리 진영 “2006년 주지사 연설과 똑 같아”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경선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 두 상원의원이 치열한 접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탁월한 대중연설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해온 오바마가 다른 정치인의 연설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에겐 꿈이 있다’는 명언도 말이다. ‘모든 인간은 광동하게 태어났음을 진리로 믿는다’ 역시 말이다. ‘두려움 말고는 두려워할 것 이라고 없다’ 이것도 말이오 연설일 뿐이다”라고 오바마는 강조해 갈채를 받았다.

힐러리 진영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나치지 않고 오바마와 패트릭 주지사의 연설 장면을 동영상으로 유포시키면서, 오바마가 연설을 표절했다고 공격하고 나섰다. 이들도 밝히지 않은채 다른 사람의 연설을 표절한 것은 원래 연설을 한 사람에게 잘못일 뿐 아니라 연설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맹렬히 공격했다.

2009년 교원임용고사 대비 = 겨울학기 교육학+전공특강

7·9급 공무원원 전직종대비

9급 문제풀이반 (1개월완성) 개강 3월 3일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